DuPon과 사회적 책임

한국에서 미라가 발견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에는 미라를 통해 선인들의 생활상을 유추함으로써 우리에게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2001년 11월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경기도 양주의 소년 미라가 그것이다.

국내 최초로 발견된 어린이 미라는 연대 측정결과 300여년 전인 1690년경 사망했고, 흙에서 나온 꽃가루를 통해 어느 따뜻한 봄날 묻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치아와 골격의 상태로 미루어 5.5세의 소년이고. 묻힌 곳이 해평 윤씨의 선산인 점에 비추어 DNA 검사를 한 결과 미라의 주인은 해평 윤씨 가문의 종친 윤호 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사망원인도 천연두로 추정됐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구의 미라가 발견됐으나 후손들의 반대로 그대로 묻히거나 아니면 보존기술이 없어 그대로 산화해버린 사례가 여럿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에서 발견된 김덕룡 장군의 미라이다.

김덕룡 장군은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쳐 왜군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던 맹장으로 전남지방에서는 사당을 지어 나라사랑 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어느 날 후손들이 김덕룡 장군의 묘를 이장하던 중 김덕룡 장군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미라로 발견됐으나 곧 산화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버린 사건이 있었다. 만약 당시에 미라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고 오늘날과 같은 생물학 · 의학 기술이 있었다면 400여년이 지난 시점에도 장군의 미라를 보면서 진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었겠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는 2004년 2월1일 KBS에서 재방영한 소년 미라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2002년 10월26일 KBS가 방영한 역사스페셜 소년 미라, 300년 만에 깨어나다 는 부제 첨단의학으로 밝혀내는 300년 전 미라의 삶과 죽음 이 말해주듯 법의학 · 해부학 · 생물학 · 물리학 및 피부 · 모발 전문가들이 참여해 나이와 사망원인, 사망시기를 밝혀냈음은 물론 전통복식을 연구하는 단국대 박성실 교수는 미라가 입고 있던 옷(중치막)에서 그동안 밝힐 길이 없었던 조선 중기 아동복식을 재연하는 데 성공했다.

발견 당시 미라는 아버지의 바지를 깔고, 어머니의 장옷을 덮고 있었다. KBS 제작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라의 생전모습을 복원했고 영상 복원된 미라는 박성실 교수에 의해 복원된 옷을 걸쳐 완벽한 모습으로 되살릴 수 있었다.

의학 · 생물학 등을 동원해 300년이 넘은 미라의 나이, 사망시기, 사망원인을 밝혀낸 점도 감명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필자를 더욱 깜짝 놀라게 한 점은 역사스페셜이 끝나고 제작진 및 협찬기업을 소개하는 대목이었다. 미라의 모습을 재현하는 데 들어간 옷감(의류원단)의 협찬기업이 DuPont이라는 사실이다.

국내에는 화학섬유 제조기업이 무수하고 수출액도 자동차, 반도체, 통신기기, 철강 등에 이어 5-6위에 올라 있음은 물론 얼마 전까지 수출효자품목으로 위상을 떨쳤던 화학섬유산업이 어찌하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됐나 생각하니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데 얼마나 곤궁하면 역사를 재현하는 작업을 외국 화학기업에 맡기고 말았는지 안타까움을 넘어 애처로운 생각마저 드는 순간이었다.

최근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경쟁력 상실의 원천이 바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은 아닐지 생각되기 때문이다. 화학섬유 제조기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경영실적이 오직 자본주나 경영진, 회사원의 노력에 따른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은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화학섬유 제조기업 관계자들은 아마도 그동안의 성장과정이나 양호한 경영실적이 오직 오너나 경영진 또는 내부조직의 노력의 결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그 결과 회사가 망해가고 경쟁력이 없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가고 있는데도 노-사 갈등이 첨예하고 그래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쓰러져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DuPont은 한국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역사를 재현하는데 일조한 반면, 국내 화학섬유 생산기업

들은 한국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외면했다. 경영철학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대목이다.

국내 석유화학을 비롯한 화학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화학저널 2004/2/16>